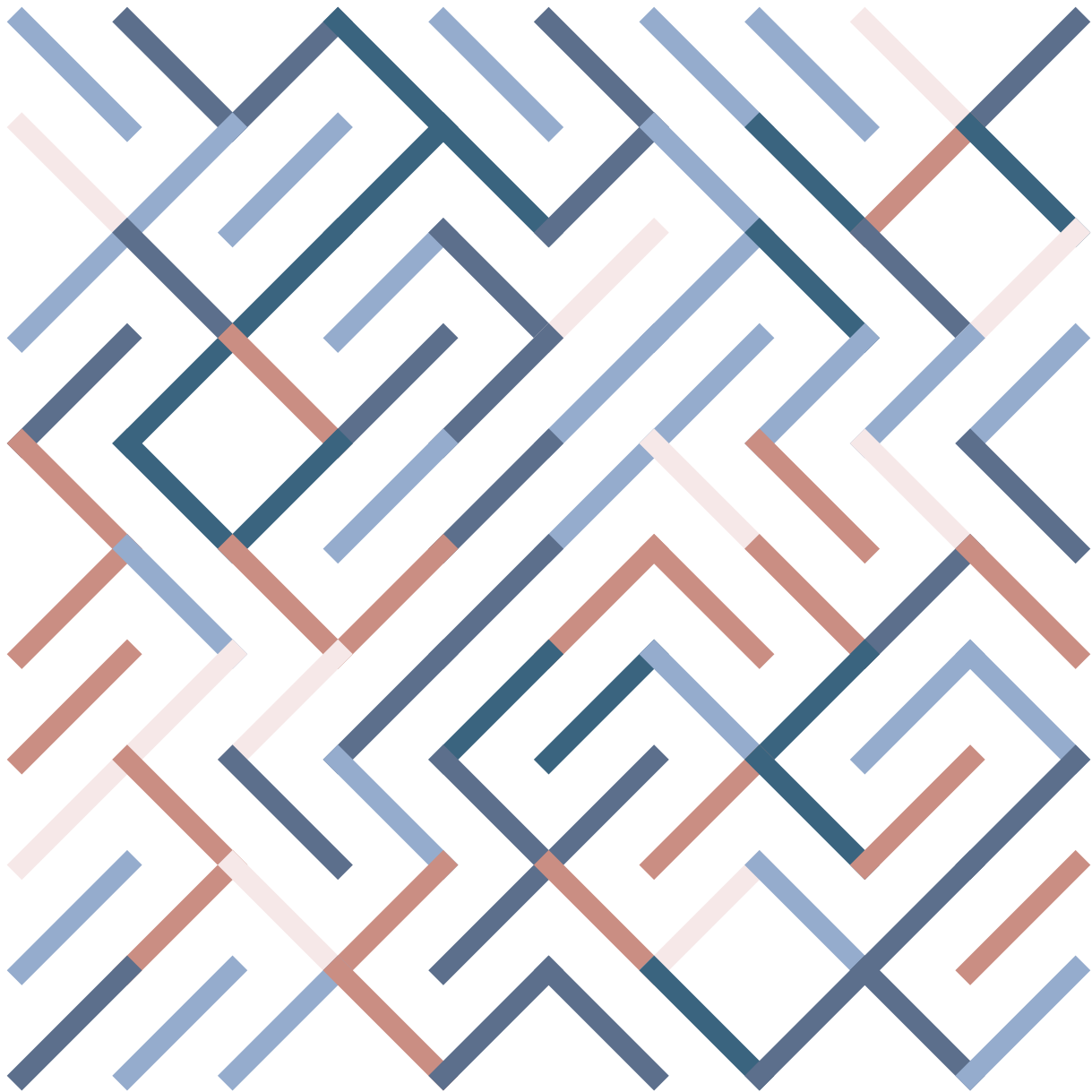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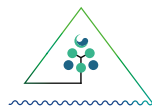




2024 VOL.17

한의학산업 육성, 한의복지 실현
제주한의학연구원이 만들어갑니다.

뉴스 레터



제주한의학연구원
JEJU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目次

Opinion

제주한의학연구원의 역할과 미래 과제	04
2024년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 수립 제출 시행 원년: 지역 계획과 미래를 향한 도약	06
‘제주도 한의학 육성 및 지원조례’와 제주한의학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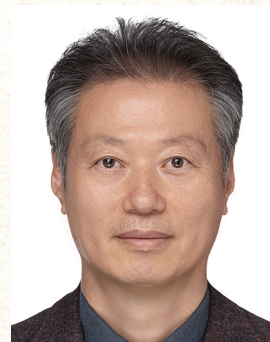
2024 JIKOM 주요사업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11
한방가공법 활용 감귤부산물의 기능성소재 개발 연구	12
제주 특화자원 및 한의학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13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및 한의웰니스 치유산업 육성 연구	14
2024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15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16
2024년 제3회 제주 한의학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17

2024 JIKOM NEWS

약이 되는 풀, 꽃, 나무 이야기 제주 한의학자원 ‘약초교실’ 진행	18
개원 8주년 맞은 제주한의학연구원 미래 위한 ‘재도약’ 다짐	19
제주도한의사회·제주한의학연구원 해녀 대상 한의진료 ‘성료’	20
소화불량에 쓰던 약재 “인지·기억능력 개선에 효과”	22
제주한의학자원 약초교실 심화과정 운영	23
“하루 한방, 건강한 동행” 제주 한의학 웰니스 박람회 열린다	24
도내 최초 기능성표시식품 마을기업 기술이전	26
제주도민과 함께 한 ‘하루 한방(韓方), 건강한 동행’	27
도내 기업과 레드바이오 소재 연구 업무협약 체결	29
제주한의학연구원 ESG 실천 이호테우해변 플로깅	30
2024 ESG경영 현황	31
재미있는 한의학 이야기	33

여느 때보다 다르고 여느 때보다 가슴이 더 뛰는 뜨거운 열기가 살아 움직이는 12월입니다. 겨울의 기운은 안으로 수렴하여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게 일상인데, 생명의 기호인 갑(甲)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인 진(辰)이 만난 2024년 甲辰年 겨울은, 추위를 뒤로하며 지난 한 세기 우리 아픔을 모두 품은 듯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열정과 간절함으로 오늘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암벽은 눈이 쌓여 하얗게 변했습니다.
산자락엔 아직도 푸르름을 간직한 녹음이 있고
여느 편엔 붉게 붉게 고동치는 심장과 같은 붉은 잎이
선승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앞마저 떨어진 맨살의 가지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듯 때론 울부짖 듯 울음 울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지 알려주는 듯합니다.

겨울은 가고 봄은 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겨울의 기운을 끝까지 다 받아내고 그 겨울을 겨울과 함께 보내야
우리의 봄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따스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못다 한 갑진년의 숙제가 남아있다면 다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길 희망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빈호

제주한의학연구원의 역할과 미래 과제



경희대학교
한의학대학 교수 **백 유 상**

제주한의학연구원은 제주 한방의료, 한약의 육성,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는 명실상부한 제주도 유일의 한의학 중심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정책본부장과 기획협력실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을 살려 제주한의학연구원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나름의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한의학 관련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관련 기초 R&D 사업과 일부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방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보

건복지부의 한의학 정책 수립 및 관련 다양한 정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한의학연구원은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으나 3대 전략 가운데 한의학산업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한방산업 진흥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규모를 생각할 때 제주한의학연구원이 기초 R&D와 한의학산업 진흥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추구하고 구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이며, 단 양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학 산업 진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과 기본적인 한의학 기초 R&D의 중요성을 함께 감안할 때에 대략 5:5의 균형을 맞추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타 한의학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도 추가로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한의학 관련 사업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입증 및 인증, 한약 관련 1차산업부터 3차산업까지의 전주기 관리, 한약물 소재은행 구축, 한의학 산업체 지원,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한방 웰니스 관광산업 지원, 한방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한의학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한의학 치료 기술 개발 및 임상 표준화 사업, 한의학 정보·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약물 또는 한약 처방 안전성의 입증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인증 기관 운영이 필요한데, 한국한의학진흥원의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와 품질인증센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약 전주기 관리로는 품종 개발 및 보급, 스마트팜 운영, 한약 유통시스템 구축 및 지원, 1차 생산물을 위한 H-GMP 및 한약 제제 GMP 운영, 원외탕전 인증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약 소재은행 구축은 한약 자원과 바이오 신기술을 활용한 소재 개발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며, 한의학 산업체 지원 사업은 한방의료기기 실증 및 창업·교육 지원, 한의학 산업환경 및 제도 개선 지원, 한의학 특허 기술은행 운영 및 상용화 지원, 한의학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글로벌 K-Medicine과 한류 문화 확산에 맞추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방의료기관 지원, 한방의료 서비스 및 제품의 해외 진출과 교류 협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웰니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 시스템을 시행하며 이들 기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외에 난임 치료, 영유아, 청소년 및 장애인 건강관리 등 한방 보건의료 생애 전주기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의학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은 중장기적인 제4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2021년~2025년)의 큰 틀 속에서 당면한 한의학 산업과 보건의료 환경에 맞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한의학 치료 기술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을 진행하고 표준 임상 지침을 개발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상의 모든 한의학 진흥 사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제하고 이미 공개된 데이터들과 함께 DB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유통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물과 소비 주체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며 여기에는 특히 AI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최근 1년여 동안 제주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제주 특화 독의약 소재 실용화 기반 연구, 항노화 한의약 복합 소재 개발 연구, 청피의 기능성 지표 성분 분석 및 감귤잎 추출물 원료 표준화와 효능 검증 연구, 월경곤란증에 대한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용암해수를 포함한 식품 원료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제주해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주로 제주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한약물 또는 식용 소재의 특성을 규명하고 실용화하는 R&D 사업과 일부의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한의약 발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제주한의학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획 담당 부서에서 기관의 중장기 사업 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 전략보고서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카테고리의 한의약 관련 사업들을 대부분 망라해야 하며, 당연히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보건의료 환경 조건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담길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실행 전략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사업 수행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제주한의학연구원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앙부처의 국비 사업에 일부 참여하여 지원받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자원의 투입과 실행 소요 기간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관의 중장기 사업 전략보고서는 일종의 reference의 역할을 하게 되어, 여기서 인용된 사업 계획들이 제주도, 중앙정부, 민간기업 등에 지속해서 제출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한의약 관련 인프라 구축과 대형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2023년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며, 2025년에는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므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반영하여 담아낼 수도 있다. 물론 기관장 이하 주요 보직자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각계의 전문가 자문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된 전략보고서는 미래 제주한의학연구원과 제주도 한의약 발전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 한의약 발전 전략으로서 여러 분야의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융합형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주의 환경에 적합한 중점 약용작물 1-2개를 선정하여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관련 재배 기술을 연구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한 효능의 한약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한의약 1차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러한 스마트팜 시설에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다양한 웰니스 인프라 및 프로그램(공원 및 전시장, 카페 및 식당, 숙박 및 체험관 등)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기반 한방 웰니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패키지화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경우 국내와 해외 관광객의 체류가 많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K-Medicine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한방 웰니스 패키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 전략으로는 다양한 관광 및 산업 자원들을 연계하는 IT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현하여 한방 웰니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한의학연구원의 한의약 발전 전략 수립과 사업 시행의 과정에서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학연구원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한의약 산업 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단위 사업을 확산하려는 중앙부처와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는 대한민국의 한의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주한의학연구원은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체, 사회단체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며 국내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주요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전문가 그룹의 풀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여러 측면에서 고유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의약이 가진 친환경, 인간중심, 치료와 케어의 융합적 특성이 잘 들어맞는 지자체 중 하나이다. 정부의 한의약 발전 정책에 발맞추어 제주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에 적합한 한의약 사업들을 발굴하여 꾸준히 시행해 나간다면 기관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당면한 보건의료 분야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한의학연구원의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의 노력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0.

2024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제출 시행 원년: 지역 계획과 미래를 향한 도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 **박 유 선**

한의약 육성법의 정의와 목적

한의약 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의 정의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and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 and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 and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한의약은 전통적인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방 의료행위 and 한약업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된 한약사는 한약의 생산, 가공, 제조, 조제, 수입, 판매 등 한약학 기술 and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의약 기술은 한방 의료, 한약 제제 및 재료, 한의약 관련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한의약 육성법의 주요 내용

한의약 육성법은 국민 건강 증진 and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시책 and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 and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한의약 육성법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 ① 국가 and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and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 and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0.22.]

2024년 1월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능동적 사업 추진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주지역 계획 우수사례

2024년은 지역계획 수립 의무가 처음 시행된 해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설명회 개최, 상시 컨설팅 등의 실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한의약산업 가치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의약 자원 기술 고도화: 한의약 특화 자원을 활용해 미래 바이오소재 개발한 한의약 자원 기술 고도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한의복지 강화: AI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한의 복지 강화.

제주 한의약 산업 기반 강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산업 기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은 한의약육성계획의 4대 목표 중 ‘한의약 중심 지역건강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과 높은 정합성을 보여줍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현황과 향후 과제

2024년 첫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관련 사업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건강증진 및 방문진료 사업 등 1차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 외에도 지역 한의약 인프라를 활용한 한의약 산업 발전 계획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의약 지역계획은 일차 의료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발전, 이용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여 부서 간 협력과 도내 유관기관 간 연계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담당할 계획들이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조례’와 제주한의약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제주도한의사회
부회장 **최 우 석**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자체장이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동안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음으로써 실효성 있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한의학 육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¹⁾

한의학 육성법

제2장 한의학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개정 2012. 10. 22.>

제5조(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학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학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학기술의 정보화
4. 한의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학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전문개정 2012. 10. 22.]

제8조(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장 한의학 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

1) 강현구, “개정 ‘한의학육성법’ 발효...한의학 육성 새 전기”, 한의신문, 2024년 1월 25일, <https://www.akomnews.com/>

제10조(한의학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 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 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2024년 10월 24일에는 제주도에서도 한의학의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학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학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학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학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학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고 합니다.²⁾

제주특별자치도 한의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학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학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 ① 도지사는 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한의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한의학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 ① 도지사는 「한의학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학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학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2) 강현규, “제주도의회 ‘제주도 한의학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의신문, 2024년 10월 28일, <https://www.akomnews.com/>

6.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제주도 차원의 다양한 한의약 육성사업이 추진될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이러한 한의약 육성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의과대학이 없는 제주도에서 조례안에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의 규모나 역량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의 방편에 대해 저는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는 전국의 한의과대학에 있는 교실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각 한의과대학 안에는 10개 정도의 기초학교실과 10개 정도의 임상학교실이 있습니다. △경혈학 △방제학 △병리학 △본초학 △생리학 △약리학 △예방의학 △원전외사학 △진단학 △해부조직학 등의 기초학교실의 경우 대부분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초학교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실이 한약이나 침(약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계내과 학교실 △심계내과학교실 △비계내과학교실 △폐계내과학교실 △신계내과학교실 △부인과학교실 △소아과학교실 △침구과학교실 △사상체질과학교실 △신경정신과학교실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재활의학과학교실 등의 임상학교실에서는 각 교실에 해당하는 질환들에 대한 임상연구나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이 없이 한의약육성사업을 해야하는 제주도로서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자체적인 연구 사업 역량도 강화해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전국의 한의과대학 교실들과 교류할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전국의 연구·사업 동향도 파악하고, 필요한 교실과는 업무협약도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외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나 한국한 의학진흥원과도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의약 전공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의약 전공 연구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제주도에 호감을 갖고 있는 한의약 전공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가령 안식년을 갖는 연구원이나 은퇴한 연구원을 초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제주도 한의약 육성사업을 매개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한의약을 주제로 한의약 관련 연구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한의약 육성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01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독의약 소재는
학술적,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바이오 소재로 한약,
신약, 기능성화장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제주의 차세대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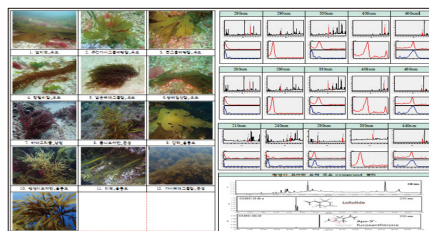
- 제주 특화 독의약 소재(식물성, 동물성, 세균성 등) 등 미래 바이오 한약, 의약, 기능성화장품 등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
- 제주 독의약소재 정제 및 효능검증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바이오 산업화 기반 마련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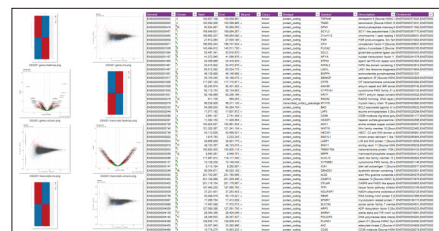
- 제주 유용 독의약 소재의 효능검증 기반 마련
- 독의약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실용화 기반 마련

성과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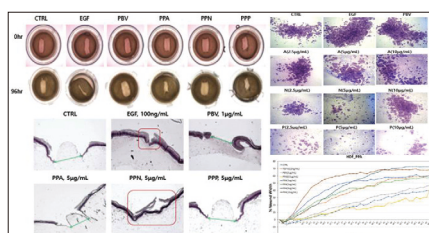
- 제주 유망 독의약 기능성 소재 발굴 및 DB 구축
- 제주 정제봉독 유래 합성 펩타이드에 의한 상처치유 효능검증
- 독의약 소재 유래 합성펩타이드에 의한 상처치유 및 피부질환 개선 기능성 검증을 위한 RNA 시퀀싱 분석 완료
- 인체조직 모델이용 합성펩타이드에 의한 상처치유 개선 효능검증
- 독의약 소재 함유 마이크로 패치에 의한 관절염 개선 전임상 효능검증
- 제주산 봉독 유래 조성물 및 소재 응용 합성 펩타이드들에 대한 피부재생과 피부장벽 강화 효과 검증 및 원천기술 권리 확보(특허출원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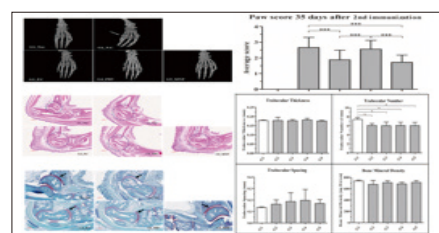
제주 유망 독의약 기능성 소재 발굴 및 DB 구축



피부장벽개선 및 상처치유 효능 관련 RNA 시퀀싱



인체조직 모델(좌) 및 피부조직유래 세포주 (우) 상처치유 효능



독의약 소재의 관절염 개선 전임상 효능 검증



02

한방가공법 활용 감귤부산물의 기능성소재 개발 연구

한방가공법 적용
감귤산업 부산물(감귤잎)의
기능성 증대 원천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식약처 신규 식품원료 등록소재인 감귤잎은 매년 전정을 통해 파쇄 후 폐기되고 있어 신규 고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감귤잎의 품질기준 규격설정 및 기능성소재 개발 연구를 통한 제주지역 감귤 산업 부가소득 향상 및 산업화 가능성 제시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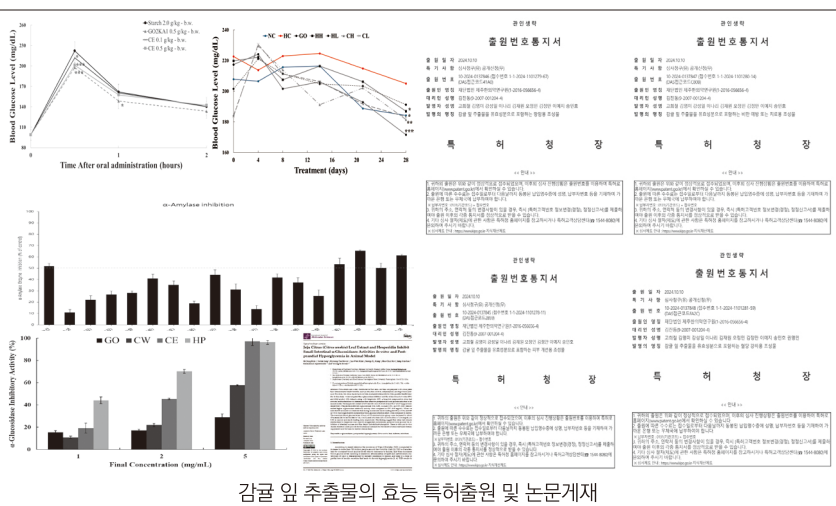
- 감귤잎 품종별 flavonoid 구성성분에 대한 화합물 특성 분석
- 감귤잎 추출물에 대한 기준규격설정 및 시험법 검증
- 한방가공법 적용 감귤잎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항염, 항암활성 비교
- 한방가공법 적용 감귤잎 추출물의 *In vitro* 및 *In vivo* 혈당조절 효능평가

성과 및 향후계획

- 감귤잎(18개 품종) 추출물 내 19종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 한방가공법 적용 감귤잎 추출물의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확립
- 원료표준화 감귤잎 추출물의 *In vitro* 효능검증(항산화, 항염, 항암 등)
- 동물모델을 활용한 감귤잎 추출물과 지표성분에 대한 혈당 개선 효능검증
- 감귤잎 기능성 조성물 특허 출원 4건(항비만, 피부개선, 혈당조절, 항암) 및 논문게재 1건



품종별 화합물 특성분석



감귤 잎 추출물의 효능 특허출원 및 논문게재

감귤 잎 화합물 특성분석 및 효능평가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한의 임상을
근거로 한 복합처방
항노화 소재와 지역
주요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하여, 지역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큰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추세로 항노화와 관련된 헬스케어 상품개발과 시장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과학적 검증을 통한 제주 한의약 복합처방 소재 및 특허자원에 대한 항노화 기능성 소재 발굴과 초고령화 사회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소재의 산업화 연구 필요

- 한의 처방·임상에 근거한 유망 한의약 복합소재 탐색 및 기능성 검증
- 제주 주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특화소재 확보 및 효능검증
- 항노화 기능성 바이오 소재의 항노화(인지능개선, 혈당조절) 효능평가
- 세포주 기반 항노화 효능평가 모델 및 표준지침 확립

- 한약처방 기반 복합소재 세포주 기반 항노화 효능 평가 5건
- 항노화 복합소재의 배합비율별 효능(항암, 항산화, 항염증)평가 최적 비율 확립
- 제주 특화소재(5종) 및 단일·복합추출물 효능 활성 평가 완료
- 세포주 기반 항노화 기능성 평가 모델 및 표준지침서 확립 1건





04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및 한의웰니스 치유산업 육성 연구

고령화와 더불어
고유질환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제주해녀들을
대상으로 조업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초교실 운영을
통해 제주도민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해녀 대상 고유질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지속적인 조업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 시급
- 제주 도민 대상으로 한의학적 개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함

사업내용

- 제주해녀 고유질환 개선을 위한 건강상담 및 한의진료 서비스 지원
- 제주도민 대상 제주 한의약 자원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건강취약계층 대상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

- 제주해녀 대상 고유질환 개선을 위한 건강상담 및 한의 진료 (60명)
- 제주해녀 대상 고유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137명)
 - 맥진기 분석을 통한 고위험군 해녀 진단 : 2명 병원 치료 조치
- 제주해녀 대상 고유질환 개선을 위한 건강상담 및 한의 진료 만족도 : 97.08점
- 한의 웰니스 산림치유 기반 약초교실 프로그램 교육 및 현장 체험 운영 (12회)
- 제주 건강취약계층 대상 한의 진료 및 한약 처방 (61명)



제주해녀 대상 한의진료



건강취약계층 대상 한의진료



산림치유 약초교실 프로그램



05 2024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제주도내 기업에게
용암해수와 한의약소재를
활용한 제품다각화를
지원하고 애로기술을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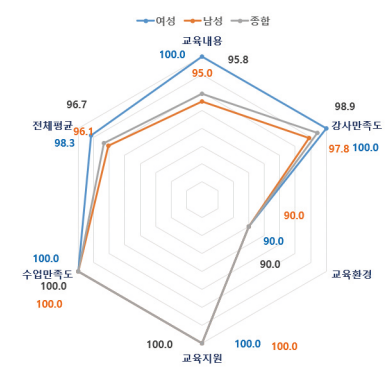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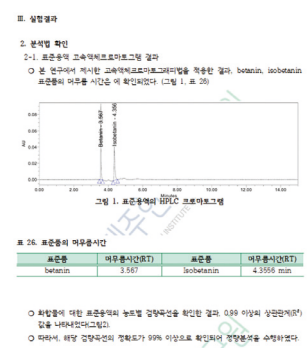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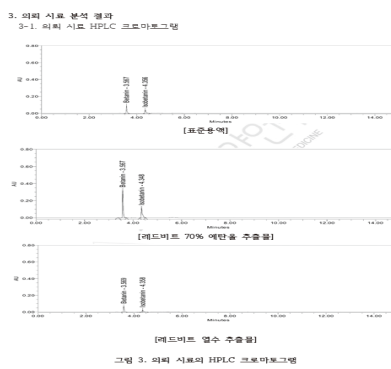
- R&D 능력이 저조한 제주지역 식품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식품 원료의 기능성 평가 지원 필요

연구내용

- 용암해수 활용 제품다각화를 위한 개발원료 및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지원
- 제주도 내 식품개발 기업 대상 원료표준화 및 제품다각화 전문인력양성
- 도내 용암해수 활용 제품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상담 및 컨설팅 지원

성과 및 향후계획

- 제주도내 기업에 대해 개발 원료 컨설팅(6건) 및 시험분석지원(7건)
- 제주도내 기업 대상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족도 96.7점)
- 스마트특성화 수혜기업 대상 시험분석 결과 활용 교류회(6건)
- 용암해수 활용 도내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기대



스마트특성화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만족도 결과



06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고령화로 인해 조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제주해녀분들의
건강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제주해녀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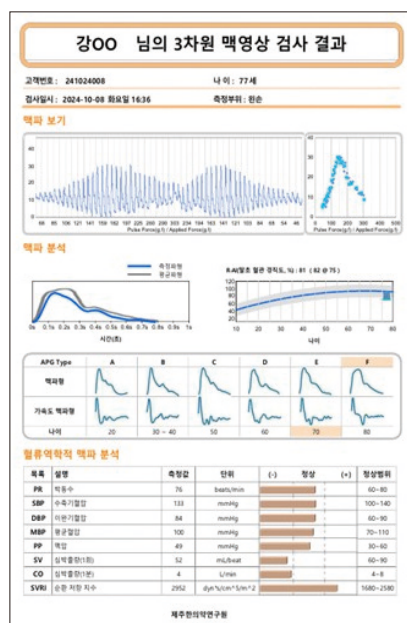
- 고령화로 인한 해녀 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 정보를 연계한 한의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
- 제주해녀 조업 위험 분석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위한 제주형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연구내용

- 스마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해녀 건강 정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제주해녀들의 건강 관리와 안전 조업 기준 마련
- 맥진기를 활용한 제주해녀 건강 데이터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환 예측 제공

성과 및 향후계획

-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활용 및 긴급상황 대처 요령 교육 실시
- 맥진기 활용 제주해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환 예측 개인별 건강 정보 수집 및 분석 : 제주해녀 137명(어촌계 8개)
- 실시간 제주해녀 심박동수 모니터링을 통한 조업사고 안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사고예방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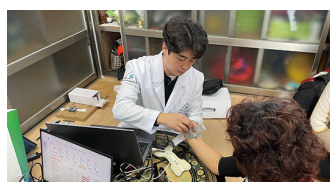
제주해녀 대상 한의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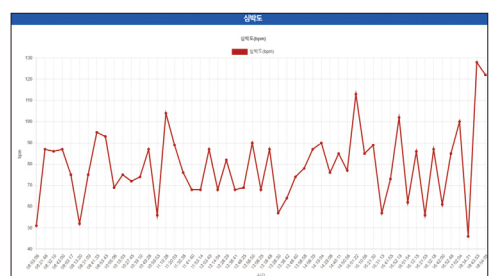
해녀 스마트워치 착용



긴급상황 대처 요령 교육



맥진기 활용 건강 데이터 수집



해녀 조업위치 및 건강정보 수집



07

2024년 제3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
주최하며, 전통 한의약과
현대 웰니스 트렌드를
결합하여 도민들이
자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신의 치유와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연대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의료체계의 불균형은 자가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한의약과 웰니스 기반의 건강관리 및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한의약 웰니스를 기반으로 자가 건강관리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의약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의약 웰니스 융합 신산업 육성 필요

행사내용

- 한약 표본 및 옛 한의 용품 전시와 스토리텔링 전시관 운영
- 술런대회 참가 장애인 및 박람회 방문 도민 대상 한의 진료
- 자가 건강관리 체험 및 한의약 재료 활용 공예 체험 운영
- 스트레스 완화 및 심신 안정 프로그램 체험 및 정신건강 지원사업 소개

주요성과

- 주제관 및 홍보관, 인생네컷존, 의료기기 체험존, 한의공공의료 서비스존, 디지털헬스케어존, 키즈플레이존 등 조성으로 총 26개 부스 운영
- 한의 웰니스 융합 신산업 관련된 기업(20개)·기관(14개) 참여
- 제주 한의약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만족도 조사 결과
→ 참여자 만족도 우수 : 만족도(87.7점), 재방문의사(93.0%) 우수
-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서비스 : 총 152명(장애인 61명 처방처방 지원)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행사 사진



약이 되는 풀, 꽃, 나무 이야기 제주 한의약자원 '약초교실' 진행

(2024. 7. 2., 헤드라인 제주)



고령화 시대 맞춰 한의약 자원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민에게 제주에서 자생하는 약용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을 알려주는 '약초교실'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6주간 약이 되는 풀, 꽃, 나무 이야기 '제주 한의약자원 기반 약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약초교실은 약초 재배, 채취, 섭취, 가공, 효능, 유통 등 약초 관련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 현장 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23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제주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한의약에 대한 관심(52.6%), 건강증진(47.4%) 등 이유로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한의학연구원은 일반과정에 이어 오는 7월 22일부터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이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한의학연구원 연구개발팀 전화(070-4203-6938)로 문의하면 된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약초교실 운영을 통해 제주도민의 한의약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음 심화과정 교육도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유익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8주년 맞은 제주한의약연구원 미래 위한 ‘재도약’ 다짐

(2024. 7. 5., 제주의 소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개원 8주년을 맞아 주요성과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5일 오전 11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서 제주한의약연구원은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성과 발자취를 되새기고 향후 제주레드바이오 주축이 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더불어 임직원들은 연구원 내 청렴 의식을 굳건히 다지고 인권 존중 의미를 다함께 높이고자 청렴 실천 결의 및 인권경영 선언에 나섰다.

행사와 함께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연구원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공을 세운 권영진 제주산학융합원 사무국장, 류영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친환경생물소재연구센터장, 부현일 JIBS제주방송 국장 등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오진택 이사장은 “작은 규모의 재원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된 연구성과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귀포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같이 도민과 함께 협력·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원 미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행자 역할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민호 원장은 “진피의 체지방 감소와 곱향의 인지능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 밖에도 유용한 한의 임상 기술을 계속 발굴하고 최적화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미래 신약으로 발전 가능성과 가치가 우수한 독의약 소재를 활용, 새로운 한의약 의료 기술 개발에 정진해 실제로 우리가 제주 제약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기관이 되자”고 말했다.



제주도한의사회·제주한의학연구원 해녀 대상 한의진료 ‘성료’

(2024. 9. 6., 한의신문)



제주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제주한의학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과 지난월부터 2회에 걸쳐 제주해녀 대상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제주해녀 헬스케어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진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고령화돼 가고 있는 제주해녀들의 건강상태 확인 및 진단을 통한 안전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소화계, 순환계, 근신경계를 비롯한 각종 통증 등에 대한 진료와 상담이 이뤄졌다.

1회차 한의진료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금능리 소재 금능리어촌계복지회관에서 강준혁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최미영(조선한의원)·방소영(모슬포한의원)·박주형

(경희행복한의원) 원장, 간호조무사 3명, 연구원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해녀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료진은 △혈압·체중 측정 △기초 생리정보·처방약물 확인 △신체통증 등 설문조사 △맥진기 검사 △진료상담 △침·약침 치료 등 한의진료를 시행하고, △한방 파스·소화제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2회차 진료는 4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고내리 경로당에서 최우석 내무부회장, 임지영 홍보이사 등이 참여해 고내리 어촌계 해녀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최우석 내무부회장은 “해녀 분들이 직업 특성상 잠수로 인한 이명, 난청,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나올 때 넘어져 생기는 타박상 등이 있었다”면서 “특히 무거운 해산물을 지고 이동하며 생긴 관절 퇴화와 근골격계 질환 등도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날 해녀들이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평소 심혈관계 질환 관리 △잠수 전 준비운동 △무리한 물질 금지 △낙상(골절 야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해녀전용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체크법, SOS 신호요청법 등 눈높이 맞춤 교육도 실시했다.

앞서 연구원은 제주해녀 전용 앱과 GPS 기능이 탑

재된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맥박수, 산소포화도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원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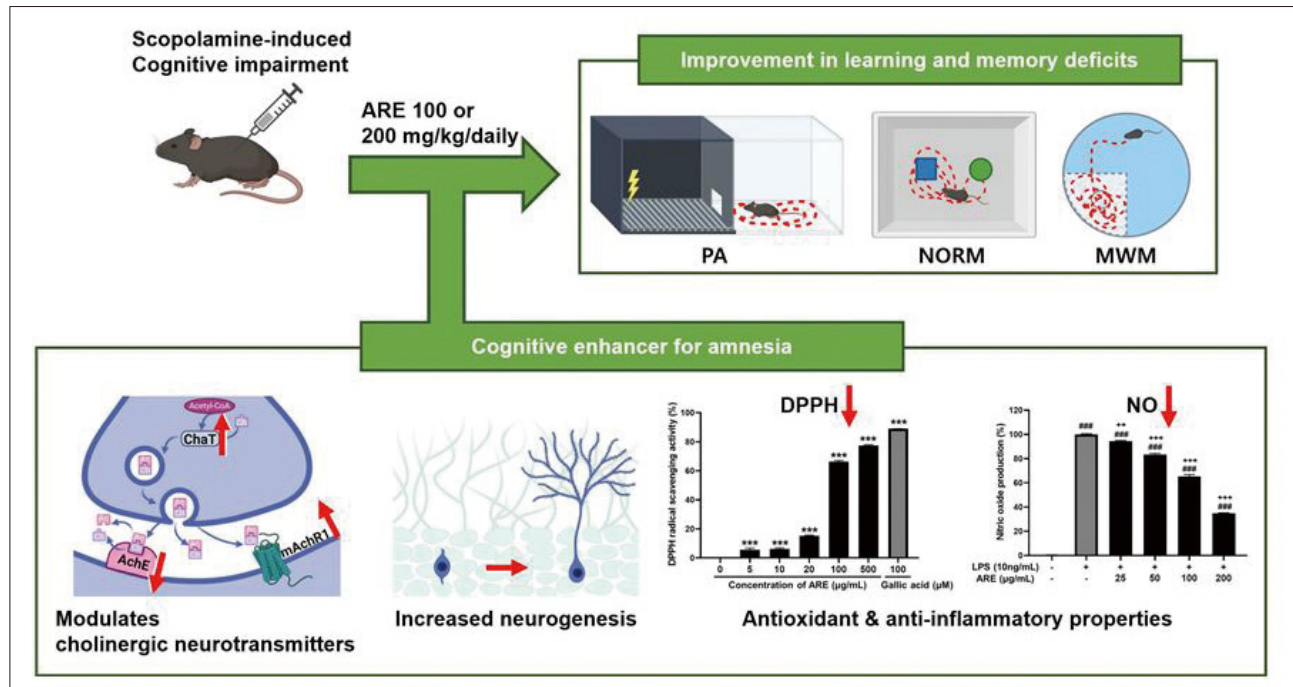
송민호 원장은 “제주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인 제주해녀의 안전사고는 지난해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번 한의진료 서비스가 제주해녀의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제주해녀분들의 건강상태를 사전 진단하고, 이상징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부에 따르면 진료 후 한의진료 서비스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상자의 대다수가 ‘매우 만족’, ‘향후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불량에 쓰던 약재 “인지·기억능력 개선에 효과”

(2024. 9. 19., JIBS)



제주한의학연구원 등 공동연구팀 “곽향 추출물 효과 입증” 연구 논문 국제 SCIE 학술지에 게재

소화불량과 위장 장애 등에 처방됐던 ‘배초향(생약명 곽향)’이 인지능력과 기억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은 전남대학교 수의과학대, 한국한의학연구원 등과 함께한 공동연구팀의 연구 성과를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이 최근 국제 SCIE 학술지 ‘Pharmaceuticals’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인지기능·기억력 장애를 가진 동물에 곽향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해당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동회피시험, 신물질탐색시험, 수중미로시험 등

동물 행동 시험 평가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곽향 추출물이 인지기능과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콜린성 및 무스카린성 신경전달물질 시스템 활성화와 신경세포 신규 생성 촉진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고 했습니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곽향 추출물의 특정 성분에 의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다는 추출물 내 여러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출물 투여 여부에 따른 능력 차이에 대해선 “뚜렷한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주)글로벌푸른친구들이 기술 이전을 받아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한의약자원 약초교실 심화과정 운영

(2024. 9. 23., 민족의학신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제주 한의약자원 기반 약초교실(심화과정)'이 지난 2일 종료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강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한의약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도민에게 제주에서 자생하는 약용자원들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강의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6.96점(100점 만점)으로, 강의 내용의 질과 강사의 전문성, 그

리고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강의 종료 후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인 20명이 강의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1%인 21명은 강의를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참여의사 항목에서 전 수강생이 '관련 강의를 다시 듣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강의를 개설되면 높은 수강 의사를 나타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강의는 수강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성공의 요인 중 하나였다"며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더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한방, 건강한 동행” 제주 한의약 웰니스 박람회 열린다

(2024. 10 24., 제주의 소리)



제3회 한의학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2024.11.02 (토) 09:00-17:00
제주복합체육관 2층

박람회로 가는 발걸음! 건강의 첫 걸음!
하루 한방(韓方), 건강한 동행







주요프로그램

진료
상담 무료 한의진료·상담

체험
행사 자가 건강관리 체험

전시
행사 제주 한의약자원 전시

공예
체험 한의약 공예 체험

홍보
소개 정신건강 지원사업 소개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후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제주특별자치도한약사회, 한국한의학연구원,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안전교육센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 JIB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한의학연구원



‘한방(韓方)’으로 자가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한의약 웰니스 박람회가 열린다.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은 제주도와 함께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 제주종합경기장 제주북합체육관 2층에서 ‘제3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치유라는 새로운 연대와 공감의 장으로 마련된다. 한의약과 다양한 현대적 요소를 융합한 ‘웰니스’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다.

오전 10시 ‘클럽 자자’ 어린이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되는 개막식에서는 도지사·도의장 유공자 표창 수여식과 ‘박람회로 가는 발걸음! 건강의 첫걸음!’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도민들에게 자가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된다.

△건강증진 체험존 △디지털 헬스케어존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존 △웰니스라이프 체험존 △마음 치유존 등 다양한 건강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웰니스 요소가 녹아 있는 프로그램 존에서는 한약 표본 및 옛 한의 용품을 전시한 스토리텔링 전시관부터 방문객 대상 무료 한의 진료 및 상담 부스 등 도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열린다.

건기자세 교정, 맥진기 검사, 전자 실내운동 및 의료기기 등 자가 건강관리 체험과 도내 정신건강 지원사업 소개 및 그림책치유 프로그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대여 지원사업 소개 등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로는 △한방재료 향낭 만들기 △전통 매듭짓기 △한방 입욕제 만들기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치유음식 체험 △흙놀이 체험 △한방 건강 차 시음 △스트레스 지수 측정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착순 500명에게 ‘다육이’를 증정하고 선착순 100에게는 나무반지 만들기, 마크라메 체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민호 원장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자가관리 시대 자가건강관리 중요성을 체험하고 함께 공유하며 전통적인 한의학과 현대의 건강관리 방법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로 오시는 발걸음이 건강을 향한 첫걸음으로써 건강한 동행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제주특별자치도한의학사회, 한국한의학연구원,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안전교육센터,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 JIBS 등이 참여, 후원한다.



도내 최초 기능성표시식품 마을기업 기술이전

(2024. 10. 25., 제주의 소리)



제주한의학연구원이 연구 끝에 개발한 진피 관련 특허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한다.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원장 송민호)는 25일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신흥진피(대표 김조만)와 ‘펄롱플러스(기능성 표시 식품) 제품 개발’ 관련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한의학연구원과 제주신흥진피는 기술사용 계약에 따른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신흥진피는 제주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 노하우를 전달받게 된다.

제주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펄롱플러스’는 진피의 혈당 상승 억제, 혈중 중성지방 개선 효능 등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2021년 신흥1리에서 생산된 진피를 활용, 도내 1호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된 바 있다.

김조만 대표는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을 양도해 준 연구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공공성이 마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호 원장은 “신흥리에서 생산된 원료를 활용해 개발한 기술을 다시 마을에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지역과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민과 함께 한 ‘하루 한방(韓方), 건강한 동행’

(2024. 11. 4., 한의신문)



‘제3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성료
제주도한의사회, 한의진료 봉사 및 각종 체험관 운영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2일 제주종합경기장 제주복합체육관에서 ‘하루 한방(韓方), 건강한 동행’을 주제로 ‘제3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를 개최,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약 홍보에 나섰다.

제주도 주최, 연구원 주관, 제주지부 후원 및 진료 참여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전통 한의약과 현대적 웰니스(Wellness) 트렌드를 잇는 다각적인 행사를 통해 한의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초고령화·기후위기·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으로 심신(心身)이 힘든 도민들을 위해 신

체적·정서적 치유라는 새로운 연대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건강함은 물론 정신적 건강함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이날 개막식에선 어린이합창단 ‘클럽 자자’ 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도의장 유공자 표창 수여식 △‘박람회로 가는 발걸음! 건강의 첫걸음!’ 퍼포먼스 등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송민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한의약 웰니스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딜 절호의 기회로, 무료 한의



진료 및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가 건강관리 체험과 한의약 자원 전시, 한의약 공예 체험까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제주만의 특별한 한의약 자원 체험과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서비스 소개를 통해 '하루 한방(韓方)'으로 마음과 몸을 돌보는 웰니스 경험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박람회장에는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존 △오감 한의 웰니스 체험존 △제주 한의약 자원 전시관 △건강증진 체험존 △디지털 헬스케어존 △웰니스라이프 체험존 △마음 치유존이 마련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료 한의진료 및 상담 △자가 건강관리 체험 △제주 한의약 자원 홍보 △한의약 공예 체험 △정신건강 지원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제주지부는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존' 부스를 운영, 오전·오후팀으로 나눠 대상자별 '사랑나눔 한의의료 봉사(무료 한의진료 및 상담)'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방소영(모슬포한의원)·남세림(경희세림한의원)·최미영(조선한의원)·홍상철(홍한의원장)·박근식(행복

한한의원) 원장이 참여해 발달장애인(술련대회 참가자) 및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한의진료 △한약 처방(연구원 지원)을 실시했으며, 오후에는 강준혁 수석부회장, 김지훈(토마토요양병원)·장영근(영도한의원) 원장, 김혜연·이다영 과장(제주의료원)이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경철 회장은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변비 증상 등으로 불편함을, 도민들은 소화계·순환계·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진단과 함께 침·추나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진료를 통해 도움을 드렸다"면서 "앞으로 제주지부는 그동안의 한의약 사업으로 다져진 돌봄 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한의약 자원 전시관' 운영을 통해 △제주 한의학의 역사와 미래 스토리텔링 전시 △사상체질 기반 체질별 운동·음식·건강관리법 소개 △한의 웰니스 관련 생활용품과 건강의료기기를 전시·소개했다.

또 '오감 한의 웰니스 체험존'을 운영,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걷기 교정 및 바른 걷기 체험 △뇌파게, 행동 감지기 활용 한의진료 체험 △한약재 활용 한방차 시연 및 다도 체험 △한약재 활용 향낭, 손수건, 세정제 만들기 체험 △제주 메밀 풀장 등 한의약 재료를 활용한 현대적 웰니스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밖에 협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도 진행해 대상환자, 대상질환, 대상기관,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연구원과 제주지부를 비롯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 JIBS,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안전교육센터,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등이 참여·후원했다.



도내 기업과 레드바이오 소재 연구 업무협약 체결

(2024. 11. 28., 제주도민일보)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최근 (주)한국비엠아이(대표 우구-이광인)와 '제주 한의약자원 레드바이오 소재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비엠아이 R&D본부 본부장 손주선, 제2연구소 전동호 이사, 기술팀 김민경 차장과 제주한의학연구원 송민호 원장, 고희철 연구개발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자원의 미래가치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제주 레드바이오 소재의 효능 검증 및 상용화 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한의학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제주 한의약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바이오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레드바이오산업혁신성장 계획에 발맞춰 제주가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비엠아이를 대표해 참석한 R&D본부 손주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과 함께 힘을 모아, 서로의 전문성과 역량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협력이 미래의 혁신적 성과로 이어져 레드바이오산업 분야가 제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 ESG 실천 이호테우해변 플로깅

(2024. 11. 30., 제주의 소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지난 29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제주 이호테우해변 일대 플로깅(Plogging)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며, 제주한의약연구원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실현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해 플로깅을 진행했다.

송민호 원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제주의 환경을 더욱 깨끗이 만들 수 있다.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전통 약용 식물을 기반으로 한의학 연구에 기여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 4월에도 권제오름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한 바 있다.



E : Environmental

- 친환경 자원 활용 중점과제 기획 및 발굴
- 플라스틱 제로화 도정 정책 적극 참여
- 저탄소 중심 업무환경 체계 달성



플라스틱 대체 커피박 화분 활용 반려식물 캠페인 활동
(2024. 11. 2.)



깨끗한 제주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 [Plogging Day]
(2024. 11. 29.)

S : Social

- 지역사회 체감형 상생협력
- 지역사회 직·간접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연구원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기관혁신을 위한 제주한의약연구원 노사협의회 개최
(2024. 6. 27.[1차]/12. 9.[2차])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 발족식 참여
(2024. 7. 31.)



찾아가는 한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한 도민 건강복지
(2024년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사업 수행)



첨단과학단지 공동소방훈련
(2024. 10. 24.)



G : Governance

- 공정·청렴·윤리·인권 경영
- 지역사회 도민 공감 소통 확산
- 정보공개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연구원 경영 및 성과 정보공개
(홈페이지 상시 공개)



제주 한의학자원 기반 약초교실 심화과정
(2024. 8. 26.)



제3회 제주 한의학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2024. 11. 2.)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2024. 12. 4.)



재미있는 한의약 이야기



출처 :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한 한의약 웹진 11호'

약재의 발견 : 상처 치료부터 치매 예방까지, 병풀

병풀은 상처 치료를 비롯해 치매 예방, 심혈관질환 개선 등 다양한 약효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병풀의 핵심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에서 피부 치료와 재생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데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은 대부분 병풀 추출물을 주요 성분으로 활용한 제품으로, 병풀의 뛰어난 치유 능력에 기반한 제품들이다. 1970년에 국내 최초의 연고형 상처치료제로 만들어진 '마데카솔'도 마찬가지다. 병풀은 단순한 전통 약재를 넘어 현대 의학과 식품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쓰인 병풀

병풀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병풀은 최초 원산지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처음으로 피부 상처 치료제로 사용했다. 인도에서는 '상처가 난 호랑이가 병풀 위에서 뒹군 뒤 상처가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호

량이 풀' 또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렸다.

병풀의 효능은 세계 곳곳에 전해졌다. 1884년 프랑스 약전에서 처음으로 병풀을 활용해 상처 치료약을 만들었으며, 동남아에서는 약재뿐만 아니라 차, 샐러드, 음료 등 식재료로도 활용된다. 중국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는 병풀을 '적설초'라 부르며 중품 약으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 병풀(積雪草, 적설초)은 해독과 상처 회복에 뛰어난 약재로 소개하며, 특히 피부병, 종기, 화상,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병풀을 사용하면 상처의 회복 속도를 촉진하고 흉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한 병풀은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도 있어 염증 반응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병풀의 효능

상처 치료 외에도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병풀의 여러 효능이 입증되었다. 병풀은 위궤양, 위염 등의 소화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에탄올에 의한 위 병변을 앓는 쥐에게 병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위 점막 세포의 생존율 증진과



출처 : Freepik 이미지

질환의 회복이 촉진되었다. 또한 에탄올을 투여하기 전 병풀 추출물을 경구 투여할 경우에는 위 병변 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효능으로는 인지기능 개선을 통한 치매 예방과 불안, 우울증 완화이다. 치매 예방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알루미늄 독성으로 인해 만성 치매가 있는 쥐에게 병풀의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투여했다. 그 결과 알루미늄으로 인한 해마 뉴런의 손상도가 감소되었고 학습 능력 및 기억력은 개선되었다. 또, 치매 발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모노아민 산화 효소 B의 활성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풀의 아시아티코사이드를 경구 투여할 경우에는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의 수치가 낮아지고, 뇌의 5-하이드록시트립타민(5-HT), 노르에피네프린(NE) 등의 호르몬 농도를 증가시키며 항우울증 및 항불안에 효과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외에도 병풀은 항종양, 간 섬유증 예방, 심혈관질환 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다.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신품종, 자이언트 병풀

병풀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생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병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남 합천과 충북 충주 중심으로 재배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기존 병풀보다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2~3% 높은 품종인 '굿병풀'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이보다 성분이 더 높은 '자이언트 병풀'이 개발되었다.

자이언트 병풀인 '비티케어'는 화장품 기업에서 만든 신품종으로 기존의 병풀보다 유효 성분이 높으며 잎과 줄기 또한 크다. 제주 유래 자이언트 병풀의 대사 조절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이언트 병풀을 섭취한 비만 유도 쥐의 콜레스테롤과 체지방이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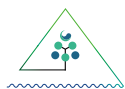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 가능

병풀은 생, 건조, 분말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에서 간편히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한의약적으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따뜻한 성질인 꿀과 함께 따뜻한 차로 마시면 좋다. 또한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섭취 시 소화 촉진은 물론 위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병풀을 활용한 외식상품 차림표 10종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병풀 페스토, 병풀 파스타 등과 같은 간편 요리를 개발했다. 이외에도 병풀추출물 원액으로 가정에서도 스킨과 팩을 만들 수 있어 간편히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제주
한의학
미래가치
창조!



제주한의학연구원
JEJU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220호
TEL. 064-702-1224, FAX. 064-753-8903